

코로나 19로 막혔던 아티스트 해외 교류가 다시 시작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작가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광주문화재단은 11년만에 처음으로 미디어아트 레지던시에 외국 작가를 참여시켰다.

광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 재개

정운학 작가 뮌헨 레지던시 파견 뮌헨 작가 11월 시립미술관 입주



정운학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 각국의 레지던시 공간들과 함께 꾸준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시립미술관과 해외기관이 서로 선발작가를 파견, 입주 기간 동안 다양한 작가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소중한 프로젝트다. 특히 지난 2017년 미술관이 자리한 중외공원 안에 국제레지던시 공간이 문을 열면서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뮌헨 빌라 발트베르타.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국제교류가 2년 6개월만에 다시 시작됐다. 지난 2년 동안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지역작가들만 참여해왔고 해외 파견은 중단된 상태였다. 미술관은 우선 독일 뮌헨과의 교류를 재개했다. 2020년 파견 작가로 선정됐던 정운학 작가가 7-9월까지 뮌헨 레지던시에 입주, 작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설치와 미디어 작업을 진행하는 정운학 작가는 다양한 빛과 색채가 연출되는 조형물을 통해 사물과 빛을 연결시키는 작업세계를 선보여 왔다. 뮌헨 레지던시에는 지금까지 윤세영·김자이 작가가 참여했었다. 뮌헨시와 협업을 파견하는 장소인 빌라 발트베르타는 뮌헨시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속한 곳으로 시각예술,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머무는 공간이다. 독일 뮌헨시 선정작가로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입주한다. 로렌츠 마이어 작가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머물며 광주작가들과 교류하게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독일 뿐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해 히말리아 미술관 주가각 예술관 국제레지던시, 북경 99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광저우 레드토리 아트&디자인 팩토리 국제레지던시에 작가를 파견했으며 김동아·이정록·김성결·양나하·이한범·정광희·박소빈 작가 등이 참여했다. 또 일본 요코하마 밴크 아트 1929, 대만 타이안 사울롱 아티스트 빌리지, 대만 관뚜미술관 레지던시, 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프로그램에도 김철아·최순임·이세현·문유미·김민지·박은현·정유승 작가가 참여했었다. 렌지(싱가포르), 펑루(중국), 플로라 바세(프랑스), 미하엘 그루젠티(폴란드), 안네 파이퍼 & 베른하르트 크로이처(독일) 등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참여해 지역 작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갔다. 미술관은 내년부터는 기존 교류 국가인 대만과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등 새로운 국가 기관과 연계해 교류프로그램도 추진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바느질로 표현한 '허구적 상상'

양세혁 개인전, 21일까지 산수미술관

손바느질로 만든 조형물은 '사각의 틀'에 갇혀 있다. 사각형 안에 온전히 담기지 못한 채 일부가 외부로 삐져나오기도 하고, 부풀어 오른 울퉁불퉁한 모양새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작가는 "가장 지속적이며 관심을 끈 것은 내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느낌이었다"며 "그것은 오래 전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지나 탐구하고 싶은 흥미로운 지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양세혁 작가 일곱번째 개인전이 오는 21일까지 산수미술관(광주시 동구 산수동 26-2)에서 열린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손바느질 조각작품과 평면 작업으로 이루어진 'Canned: 연작 2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Canned'은 인간 생존의 유지를 위해 허구적 상상이라는 '집단 정서'에 갇혀있는 인간 존재를 암시한다. 양 작가는 인간이 지닌 '집단 정서'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혐오, 외국인 혐오 등 집단 혐오와 편견을 천, 기성복, 스타킹 등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인간 다양한 표정을 담은 일그러진 얼굴 형태로 표현했다. 표정들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코믹하다. 양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민한 산수미술관장은 "양세혁 작가는 '손바느질 조각'이라는 독특한 조각 형태를 통해 인간의



'Pediophobia'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전달하고 있다"며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편견과 연약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 문병란 시인

작가 김성훈

총감독 유형민

융복합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ACC-광주, 16일 ACC 예술극장서 공연

광주의 대표적 시인인 고(故) 문병란 선생의 5·18관련 시에 영상미디어와 선율이 결합된 융복합 작품이 무대에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광주와 함께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16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1.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공연으로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호남신학대 김성훈 교수가 관현악 반주를 붙여 곡을 만들었고 유형민 총감독이 연출했다. 장운성

지휘자와 함께 코리아쿨 오케스트라, 광주시립합창단, 광양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이 풍부한 선율을 선사한다. 공연은 5월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관현악 서곡으로 무대의 시작을 알리고 시대의 어둠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돌아오는 의미를 담은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마지막으로 온 빛들이 모여 민족통일의 노래로 넘치게 된다는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로 마무리하며 막을 내린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리산문학상' 신정민 시인 선정

상금 1000만원... "고른 수준과 안정감 돋보여"

제17회 지리산문학상에 전주 출신 신정민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확보' 등 5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과 지리산문화회(회장 박철)는 14일 올해의 지리산문학상에 신정민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도현 등 심사위원들은 "신정민 시인의 시집한 권 분량은 고른 수준과 안정감이 돋보였으며 '대상을 묵묵히 견인해내는 인내력'은 모범의 것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시들 한편 한편 진심을 다해 썼다는 미덕이 있었다"고 평했다. 신정민 시인은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저녁은 안녕이란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외 4권이 있다. 2020년 최계락문학상 수상,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라코 창작기금을 지원 받았다. 지리산문학상은 시상 전년도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정호승, 최승자, 이경림, 김룡, 박지용, 정운천, 조정인, 김참, 오솔 시인 등이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정민 시인

최은여 시인

지리산문학상과 함께 공모한 제17회 최지원신인문학상 당선작은 경남 진주 출신 최은여 시인의 '머그컵' 등 5편이 선정됐다. 이번 지리산문학상과 최지원신인문학상 수상작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계간 '시산맥' 가을호와 '지리산문학' 동인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지리산문학상과 최지원신인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8일 경남 함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지리산문학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10-7387-510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첫 국제 레지던시

中 유충신, 서은선 등 5명 참여 9월 '오픈스튜디오' 진행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행 11년 만에 올해 첫 국제 레지던시로 진행한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5명이 최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레지던시 스튜디오에 입주를 마쳤다. 6개월간 진행될 이번 레지던시에는 이수빈, 유충신(LIU ZHONGCHEN), 정탁용, 서은선, 신해인 5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 외 지역 작가를 따로 선정해 체류비와 숙박공간을 지원한다. 입주작가들은 오는 9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작업공간에서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작가 개인과 작품을 소개한다. 온라인용 동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독일 드레센 미디어 디플롬 학사를 마치고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한 이수빈 작가는 공간에서의 빛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실험한다. 이 작가는 '빛, 사람, 상호작용, 관계와 현상'을 주제로 미디어 장치들을 활용해 선보일 계획이다. 중국 루먼미술학원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작가 유충신은 예술과 삶의 한계 등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오브제의 배열을 토대로 현대사회 특징을 표현해 왔는데 올해는 이 주제를 심도있게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정탁용 작가는 지역에서 청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해 미디어아트 레지던시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넘어선 비인간과 인간의 연결성, 경계의 구조까지 탐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디자인&아트테크놀로지학과 박사과정



이수빈 작 '반려인간 미인도'

중인 서은선 작가는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의 영향으로 '의식'에 대해 표현해왔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예술치유와 이를 토대로 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와 시를 결합한 '필름 포엠' 작업을 해온 신해인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 석사를 마쳤다. 그는 10년간 떠나있던 고향 광주로 돌아와 보고 듣게 된 것을 시로 창작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조민정 귀국 독주회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조민정(사진) 귀국 독주회가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템페스트)', 리스트 '순례의 해 첫 번째 이야기 스위스',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 스크리빈 '피아노 소나타 4번'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템페스트)'는 폭풍이라는 제목처럼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연주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리스트 '순례의 해 첫 번째 이야기 스위스'는 낭만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곡이며 쇼팽 '피아노 소나

타 2번'은 그의 피아노 레퍼토리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스크리빈 '피아노 소나타 4번'은 신비화음이 돋보이는 곡이다. 조민정은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고 점수로 입학 후 졸업했다. 대학재학 시절 협연가 오디션에서 우승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했으며 문현옥, 조소연을 사사하고 독립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예비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광주 피아노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석 초대. /김민서 기자 mskim@kwangju.co.kr

